‘여래장’ 있어 생사가 있다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㉚ 生死와 여래장

〈원문〉 “세존이시여, 태어나고 죽는 생사(生死)는 여래장(如來藏)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래장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사의 비롯한 때(本際)를 알 수 없다 합니다. 세존이시여, ‘여래장이 있음으로 태어나고 죽는 생사가 있다’ 고 하는 것은 훌륭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태어나고 죽는 생사라는 것은 바깥것을 받아들이는 근(根)이 없어지고, 받아들이는 근이 차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생사라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태어난다, 죽는다,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법이 곧 여래장인데, 세간의 말로 말하므로 죽는다, 태어난다,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근(根)이 망가지는 것이요,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래장이 나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여래장은 유위(有爲)의 모양을 여의었으므로, 항상 머물러 있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래장은 의지할 데이며, 간직하는 것이며, 세우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은 떠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불가사의한 불법입니다. 세존이시여, 끊어지고 벗어나고 달라지는 여러 가지 유위법의 의지가 되고 거두어 지니고 세워 일으키는 것이 곧 여래장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여래장이 없으면 괴로움을 싫어하고 열반을 즐겨 구할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지금 있는 6식(識) 등의 법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므로 괴로움을 싫어하고 열반을 즐겨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설〉 여래장이 있으므로 태어나고 죽는 생사가 있다고 한 이 말은 영원한 것이 있으므로 무상한 현상이 있다는 일반적인 말로 바꾸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상계 배후에 본체계가 있다는 말이다. 또 무위법에서 유위법의 차별이 나타난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이 여래장이 불가사의한 불법(佛法)이라 하고 여래장이 없으면 열반을 구할 수 없다 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래장이 없으면 불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 강조하는 여래장이 바로 불성(佛性)이며 진여(眞如)다. 이를 경전에 따라서 원각(圓覺), 여래장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 일진법계(一眞法界), 반야(般若) 등으로 달리 부르기도 한다.

‘여래장’ 이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은 중생이 여래의 씨앗이므로 여래가 될 수 있는 기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다. 곧 중생 누구나 불성의 가치를 똑같이 지니고 있으므로 이 불성만 계발(啓發)하면 열반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마치 진금(眞金)이 오물 속에 떨어져 있어도 그대로 진금이며, 아무리 비천한 여자라도 귀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데에 비유하기도 한다. 〈여래장경〉에는 모든 중생이 여래장이란 한 가지 사실을 9가지 비유로 설해 놓은 9유설(九喩說)이 나온다. 비유의 대상인 여래장을 더하여 때로는 10유(十喩)라고도 말한다. 여래장을 꿀에 비유한 이야기도 나온다.

“선남자여, 비유하건대 절벽 위의 나무에 순수한 꿀이 있고 수많은 벌이 그 꿀을 지키고 있을 때 그 꿀을 취하려면 먼저 벌들을 꿀에서 떠나게 한 후에 꿀을 취하여 먹고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일체중생이 여래장인 것은 저 순수한 꿀과 같고 모든 번뇌에 덮여 가려진 것은 벌떼가 꿀을 지키는 것과 같느니라.”

〈불성론〉에는 여래장에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모든 중생은 여래의 지혜에 섭수된다는 소섭의(所攝義)가 있다. 둘째, 여래의 법신이 중생에게는 숨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은부의(隱覆義)가 있다. 셋째, 중생의 마음에 여래의 과덕(果德)이 거두어져 있다는 능섭의(能攝義)가 있다고 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이 여래장에 의해 있게 되고 괴로움과 즐거움도 여래장에 의해서 있게 된다는 경문의 말은 모든 존재의 근본 바탕이 여래장이라는 것을 밝히는 말이다. 발심을 하는 것도 여래장이고 수행을 하는 것도 여래장이다.

대승불교의 여래장 사상은 여래장 계통의 경전이 성립된 5세기부터 유식 사상과 융화되어 발전한 7세기를 거쳐 밀교화 되는 시기인 7세기 중엽에 이르러 널리 퍼지며 더욱 발전된 교설이 나왔다. 이를 여래장 사상의 발전 3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생의 마음이 여래장의 마음이므로 여래장심(如來藏心)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중생의 참마음인 진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괴로움 벗고 싶다면 진여본성으로…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㊸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기 위한 수행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들은 매순간 행복한 삶을 바라며 평화와 자유를 염원하지만 행복은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종교와 신을 찾는 이유 역시 이 행복 때문이겠지만 종교와 신은 나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행복은 어느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겪는 모든 괴로움 역시도 자신 스스로가 소멸시켜 나가야 합니다. 종교는 단지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스스로 찾는 노력을 충실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자 여러분! 괴로움이나 행복한 감정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들 대부분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주관적 생각에 의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내면 깊숙이 자리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당면한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먼저 달마대사와 제자 혜가 스님의 문답을 통해서 혜가 스님은 마음 속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시켰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벽관수행을 할 당시 도교와 유교에 능통한 신광 스님이 찾아와 스스로 눈밭에서 구법단비(求法斷臂)의 의지를 보이며 제자로 받아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이때 달마대사는 신명을 바쳐 구법의 의지를 보인 신광이 예사롭지 않은 법기(法器)임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혜가’ 라는 법명을 내려 제자로 삼았습니다. 달마대사의 유일한 제자가 된 혜가 스님은 수행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수행에 큰 진전이 없자 마음이 불안하여 스승인 달마대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 왔는가?”

“저의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저의 불편한 마음을 편안케 해 주십시오.”

“편안하지 못하다는 그 마음을 가져오면 편안하게 해 주겠네.”

“그 마음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그대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네.”

이것이 그 유명한 달마대사의 안심법문입니다. 달마대사와 제자 혜가 스님과의 문답에서 알 수 있듯이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해답은 바로 자기 마음을 바로 보아서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달마대사는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깥으로 돌리지 말고 온갖 생각 감정 분별이 끊어진 마음 속 그 자리, 그 곳을 보라고 제자 혜가 스님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달마대사의 가르침처럼 자기의 마음이 바깥경계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으로 되돌려 마음의 실상을 바로 보게 하여 마음의 본질을 깨칠 수 있다면 누구나 괴로움을 벗어나 행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불안한 마음을 내놓으라고 할 때 제자 혜가 스님은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았지만 불안을 일으키는 마음의 실체가 없음을 깨쳤던 것입니다. 그때 달마대사는 “이미 그대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달마대사는 이 안심법문을 통해 제자 혜가에게 마음속의 분별망상과 온갖 감정들의 노예가 되지 말고 마음의 본질인 진여본성으로 되돌아가라고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스스로의 마음을 바로 보아 마음의 실상을 깨닫게 된다면 괴로움을 떠나 행복해질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㉚ 고씽까 법문의 작은 경 1

사대오온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아누룻다여, 그대들이 잘 지내길 바라며, 그대들이 평온하길 바라며, 음식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잘 지내고 있으며, 평온하고 음식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누룻다여, 화합하고 서로 감사하며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융화하며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내기를 바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화합하고 서로 감사하며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융화하며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묻는 것에 물음이 없고 답하는 것에 답이 없다. 한 물음에 두 가지를 섞어 어리둥절하게 되면 핵심을 놓친다. 평범한 것은 그저 다르게 봐야할 것 없이 항상 평범하다. 오온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누구나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없다. 하지만 뭇 삶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 보태든지 빼든지를 반복하면서 어떤 특별한 것에 도달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

회향은 한 스님을 보내어, 마조가 상당할 때 “어떻습니까?” 하고 묻고, 그가 대답하거든 기억해 오라고 시켰다. 그 스님이 회향선사가 시키는 대로 가서 물으니, 마조가 말했다. “그럭저럭 지내온 세월이 어언 30년, 소금과 된장 걱정은 겨우 덜었다.” 그 스님은 돌아가 회향에게 그대로 말하니, 회향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마조 스님은 그럭저럭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다. 마음에 보태고 빼는 일을 버려버린 것이다. 사대오온을 ‘나’ 라고 하는 마음이 떨어져 나가 즉심즉불이다. 그대의 사대오온의 조건 그대로 바로 부처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사대오온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대의 것이 아니기에 걱정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름 속에 이름 없으나 그 이름으로 대답하니 서로가 방해함 없이 자연스럽게 우유와 물처럼 융화되어 사랑스러운 눈빛을 잃지 않는다. 그대라는 것, 사대오온을 지칭 하는 듯 하나 사대오온일 수 없으니, 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피해가라고 문을 열어 놓지만 나가는 문을 알지 못하면 잡히게 된다. 오온의 삶은 항상 오온을 걱정하는 삶 밖에 없다. 아무리 걱정을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도 뭇 삶의 조건에서는 소용없는 일이 아주 많다. 아니, 전부 그렇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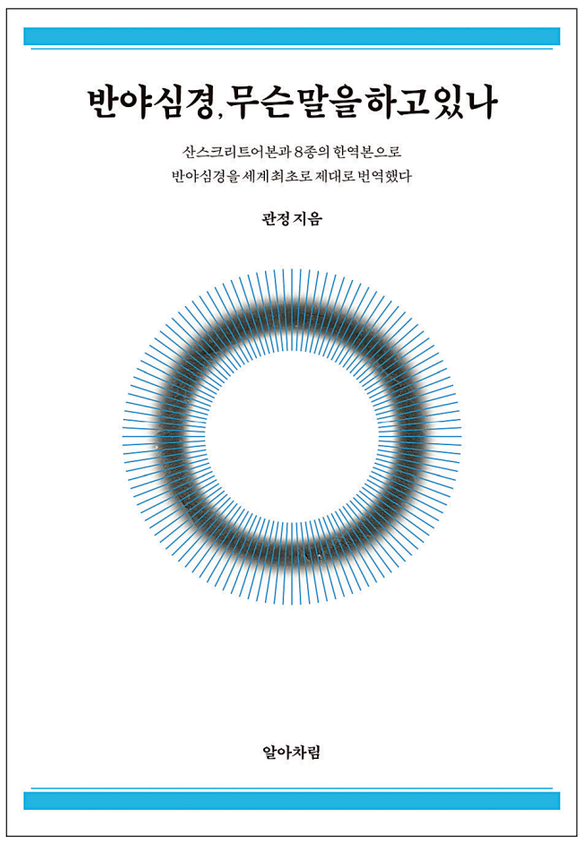
간장, 된장 조달 되어 있으니 평온하여 어려움이 없는 줄 안다. 지금 조건 지어진 것에 ‘나’ 라는 생각으로 더하고 빼고 하는 마음이 괴롭게 하는 마음임을 알게 되니 자연스럽게 평온할 수 밖에 없다. 화합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조건을 화합하는 것이 아니다. 마조 스님은 마음을 넓힐 필요도 없지만 좁힐 필요도 없는 것이라 말씀하셨다.

오온이 ‘나’ 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화합의 첫 출발이다. 그렇게 되면 사자는 사자대로, 얼룩말은 얼룩말대로, 물소는 물소대로 다투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서로가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니 서로에게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게 하겠는가. 융화하는 것은 육식 동물을 초식동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초식동물을 육식동물로 만드는 일도 아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본질의 융화를 알게 하므로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평범해지자. 거창하게 몸의 변화를 알아내고 변화하려고 하지 말자. 지금 삶 밖에 거창하게 만들어진 것들로 무거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사대오온이 내가 아님이 드러나면 거창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지가 보인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생각의 바탕 위에서 일어나는 신기루이지 사실적인 것은 없다. 이러한 앎은 안팎에 따로 알아야 할 것을 두지 않으니 항상 융화되어 있음을 놓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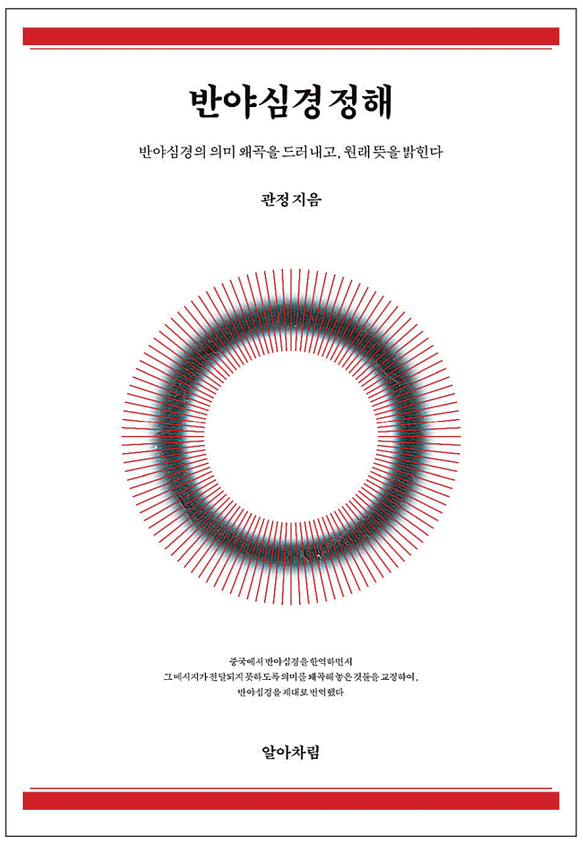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다 하니 따로 융화해야 하는 것 찾을 일 없고
모든 사물 나에게 이름 부르니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였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 관정 지음 | 220쪽 | 양장제본 | 16,000원

산스크리트어본과 8종의 한역본으로 반야심경을 제대로 번역하여, 반야심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다. 또 반야가 어떤 것인지 말해주고 있고, 반야를 완성하는 수행방법을 말해주고 있다.



| 관정 지음 | 791쪽 | 양장제본 | 65,000원

저자가 15년 동안 <반야심경>의 산스크리트어본과 8종의 한문본을 붙들고 씨름하여, 세계 최초로 <반야심경>을 제대로 번역하고, 해설한 역작이다.

중국에서 〈반야심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 하도록 의미를 왜곡해 놓은 것들을 모두 교정한 뒤 그것을 정확하고도 쉬운 말로 번역했다

현재 13개 언론에서 극찬리 보도중!! 운주사 불교서적 7월 월간베스트 1,2위!

책을 추천하는 말

- 관정 스님께서 난해하기 짝이 없는 반야심경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여, 정확한 말로 번역, 해설한 것은 반야심경 연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 당나라 현장법사 이후 가장 많은 불전을 번역한 전재성 박사**
- 관정 스님은 단순히 반야심경을 정확하고도 쉬운 말로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어본과 8종의 한역본을 연구하여, 반야심경이 한문으로 번역될 때 잘못 번역된 것을 모두 바로 잡았다. **– 〈반야심경과 마음공부〉의 저자 법상 스님**
- 관정 스님은 〈반야심경〉을 명료하게 번역해 놓았다. 관정 스님이 번역한 〈반야심경〉을 접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반야심경〉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어버린다. 여태껏 그 어떤 〈반야심경〉의 번역도 이런 뜻으로 해석한 것이 없었고, 이렇게 분명한 언어로 번역한 것도 없었다. **– 방어산 은둔 비구 普信(보신) 스님**
- 관정 스님의 이 책은 〈반야심경〉 역해사(譯解史)에서 기념비적인 의의를 가질 것이며,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영남대학교 철학과 최재목 교수**
- 〈반야심경〉 책은 일본에서도 많이 출판됐다. 관정 스님의 반야심경 번역은 일본의 그 어떤 번역보다 정확하다고 본다. **– 경북대학교 일문학과 이종환 명예교수**

※ 기타 책 내용 및 저자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서점 알라딘에서 이 책을 검색해서 얻기 바랍니다. 사찰 단체 구입 시 특별 할인가로 제공.

알아차림 출판사 051) 516–0093, david1080@hanmail.net